

香山別曲 (향산별곡)

작자미상

어제 밤 비가 개니, 四山(사산)의 봄 빗치라
淸風閣(청풍각)¹⁾ 낮잠 켜야 春復(춘부)이 거의이니
童子(동자)가 六七(육칠)이요 어른이 세네이라
東臺(동대)의 들깻 술을 天柱寺(천주사)²⁾ 내려와서
六勝亭(육승정) 배를 매고 隱松亭(은송정)³⁾ 올라가니
牧丹峰(목단봉)⁴⁾ 넓흔 곳에 석양이 거의로다
石徑(석경)의 막딤 소리 오나이 어대 중교
妙香山(묘향산) 봄 風景(풍경)을 너다려 물어 보자
시절이 三春(삼춘)이오 피느니 피꽃치라
峰峰(봉봉)이 푸른 비춘 蓬萊山(봉래산) 金光草(금광초)⁵⁾오
골골리 흐른 물은 武陵(무릉)의 落花(낙화)로새
芒鞋(망혜)와 竹杖(죽장)을 欣然(흔연)히 옷을 쓸쳐
飲博樓(음박루) 내다라서 小林村(소림촌)⁶⁾ 지나가니
뛰니영 달바자⁷⁾의 鷄犬聲(계견성) 閑暇(한가)하다
石倉(석창) 말을 쉬어 魚川驛(어천역)⁸⁾ 차자가니
꽃속의 슈삼 驛村(역촌) 저녁 내 자자졌다
솔바람 지난 後(후)의 四絶亭(사절정)⁹⁾을 올라보니
四五株(사오주) 너른 남기 樂落(낙락)히 버렸는데
空中(공중)의 달닌 집이 隱然(은연)의 숨어이니
壁上(벽상)의 삭인 글씨 예삼람 좌취로다
푸른 돌 물근 내의 들빛치 無限(무한)하다
十里(십리)垂楊(수양) 맞께 歷歷(역력)흔 行人(행인)이라

어젯밤 비가 개니 주변 산이 봄빛이라.
청풍각에 낮잠 깨니 다시 봄이 거의 오니
아이가 육칠 명에 어른이 삼사 명이라.
동대에서 덜 깻 술로 천주사에 내려와서
육승정에 배를 매고 은송정에 올라가니
목단봉 넓은 곳에 석양이 거의로다.
돌길에 지팡이 소리 오는 이 어디 중인가.
묘향산 봄 풍경을 너에게 물어보자.
계절은 봄이 한창이요, 핀 것은 산꽃이라.
봉우리마다 푸른 빛은 봉래산 금광초요,
골짜기마다 흐른 물은 무릉도원 낙화로세.
짚신과 대지팡이에 가볍게 옷을 떨쳐
음박루 내달아서 소림촌 지나가니
뛰 올라 달바자에 개닭소리 한가하다.
석창에서 말을 쉬어 어천역 찾아가니
꽃 속의 서넛 역촌 저녁 안내 잤아졌다.
솔바람 지난 뒤에 사절정에 올라보니
네다섯 기둥 넓은 나무 늘어져 벌렸는데
공중에 달린 집이 보일 듯 말 듯 숨었으니
벽 위에 새긴 글씨 옛사람 자취로다.
푸른 돌 맑은 내에 들빛이 무한하다.
십리 수양 버들 밖에 뚜렷한 행인이라.

1) 평안도 영변에 있던 누각.

2) '동대'는 평안도 영변의 약산에 있는 대로 관서 팔경의 하나이고, '천주사'는 동대의 동남쪽에 있는 절.

3) '육승정', '운송정' 모두 평안도 영변에 있는 누정.

4) 평안도 영변에 있는 산.

5) '봉래산'은 중국 전설의 가상적인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이고, '금광초'는 먹으면 장수를 누린다는 풀.

6) '음박루'는 평안도 영변에 있는 수구문루(水口門樓)이고, '소림촌'은 영변에 있는 마을.

7) 달풀을 엮어 만든 바자. 바자는 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를 엮어 울타리를 만드는 물건

8) '석창'은 평안도 영변에 있는 마을이고, '어천역'은 영변에 있는 역원.

9) 평안도 영변에 있는 누정.

匹馬(필마)를 채를 쳐서 月林江(월림강)¹⁾ 다다로니
 적막한 荒江(황강) 위의 물소리 뿐이로다
 부라고 또 불너서 빈 배를 재촉하니
 靑山(청산) 一孤舟(일고주)로 蓑笠(사립) 쓴 저 舟者(주자)야
 滄浪曲(창랑곡) 白石歌(백석가)²⁾의 一生(일생)의 일이 읊다
 白沙汀(백사정) 다 지나서 九松臺(구송대)³⁾ 너머가니
 千萬疊(천만첩) 구름 뒤희 갈 기를 막아이다
 絶壁(절벽)의 나무 꽃희 소 꾸짖는 소리 나니
 문도로 저 百姓(백성)아 놀 의하야 예서 산고
 뫋불이 진난 터의 석전(石田)을 길리가라
 두 암소 한 쟁기의 치 같고 내리 가라
 官稅(관세)를 바친 後(후)의 計量(계량)을 헤오리라
 一年(일년)을 버은 穀食(곡식) 남은 것 을만고
 소나무 외다리로 獅子(사자)목⁴⁾ 도라드니
 尋眞亭(심진정)⁵⁾ 자근 亭子(정자) 내까의 지언는데
 松下(송하) 흰 꽃 같은 네다섯 중이로다
 절하고 마자나서 압기를 前導(전도)흔다
 杜鵑花(두견화) 丁香樹(정향수)은 左右(좌우)의 자젓는데
 擔輿(담여)랄 기리모라 百花洞(백화동)⁶⁾ 도라드니
 宏廓峰(굉학봉) 卓旗峰(탁기봉)은 劍戟(검극)을 묵꺼난대
 香劍峰(향검봉) 皆盧峰(개로봉)⁷⁾은 반공(半空)의 뽕쇼났다
 꽃 향기 시내 소리 十里(십리)에 한 뫋치라
 普賢寺(보현사) 뫋 洞口(동구)의 曹溪門(조계문)⁸⁾ 雄壯(웅장)하니
 한 줄로 늘근 솔리 風雨(풍우)가 석꺼난대
 열두곳 물방아⁹⁾가 一時(일시)에 소리하니
 蒼茫(창망)흔 큰 洞壑(동학)이 白日(백일)의 雷霆(뇌정)이라

필마를 채찍 쳐서 월림강에 다다르니
 적막한 황강 위에 물소리 뿐이로다.
 부르고 또 불려서 빈 배를 재촉하니
 청산의 한 척 배에 사립 쓴 저 사공아,
 창랑곡 백석가에 평생에 일이 없다.
 백사정 다 지나서 구송대 넘어가니
 천만 첩첩 구름 산이 갈 길을 막았구나.
 절벽의 나무 끝에 소 꾸짖는 소리 나니
 문노라 저 백성아, 놀 위하여 예 사는가.
 산불이 지난 터에 돌밭을 깊이 갈아
 두 암소 한 쟁기로 올려 갈고 내려 갈아
 세금을 바친 뒤에 수량을 헤오리라.
 일 년 동안 번 곡식 남은 것 얼마인가
 소나무 외나무다리 사자목 돌아드니
 심진정 작은 정자 냇가에 지었는데
 솔 아래 흰꽃 같은 네다섯 중이로다.
 절하여 맞이하고 앞길을 인도한다.
 진달래꽃 정향나무 좌우로 펼쳤는데
 담여를 길게 몰아 백화동에 돌아드니
 굉학봉 탁기봉은 창과 칼을 묶어놓은 듯
 향검봉 개로봉은 반공중에 뽕어 솟았다.
 꽃 향기 시내 소리 십 리에 한 뫋이라.
 보현사 밖 동구에 조계문이 웅장하니
 한 줄로 선 늙은 솔에 비바람이 섞이는 듯
 열두 곳 물방아가 일시에 소리하니
 아득한 계곡물이 햇빛 아래 벼락이라.

1) 평안도 희천의 청천강 상류.

2) '창랑곡'은 작자·연대 미상의 조선시대 가사로 부귀공명을 버리고 낚싯대를 벗삼아 물 위에서 살겠다는 어부가(漁父歌)이고, '백석가'는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 영척(甯戚)이 가난하여 제 환공(齊桓公)에게 벼슬을 얻으러 가서 소뽕을 두드리면서 불렀다는 노래.

3) '백사정', '구송대' 모두 평안도 영변 지역의 지명인 듯함. 위치 미상.

4) 평안도 영변 지역의 지명인 듯함. 위치 미상.

5) 평안도 영변에 있는 누정.

6) '담여'는 승려들이 메는 가마이고, '백화동'은 묘향산에 있는 동굴.

7) '굉학봉', '탁기봉', '향검봉', '개로봉' 모두 묘향산의 봉우리들.

8) '보현사'는 묘향산에 있는 사찰이고, '조계문'은 보현사의 일주문(사찰에 들어서는 산문 가운데 첫 번째 문).

9) 폭포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물레방아로 표현한 것.

天王堂(천왕당)¹⁾ 김흔 곳의 찰바람이 절누 나니
黃金甲(황금갑) 칠성검(七星劍)에 네 將帥(장수)²⁾ 난와셨다
萬歲樓(만세루) 크게 열고, 正堂(정당)³⁾의 안딘 후의
삭인 창(窓) 나난 첩하(簽下) 壯麗(장려)도 함도 홀사
四面(사면)의 그린 神仙(신선) 毛髮(모발)이 살아난 듯
큰 사매 높은 관의 늘근 중 올라와서
百八珠(백팔주) 쇼의글고 하쇼리 木鐸聲(목탁성)에
열네 房(방) 모든 중이 次例(차례)로 모혀오니
威儀(위의)는 창창하고 예수(禮數)⁴⁾도 整齊(정제)하다
蒼蒼(창창)한 松柏林(송백림)의 層層(층층)한 彩色(채색)답이
眼力(안력)이 현황하니 갈 길이 稀微(희미)하다
十王展(시왕전) 羅漢宮(나한궁)⁵⁾이 東西(동서)로 버릇난대
뜰 압희 삭인 塔(탑)⁶⁾이 은제 적 功力(공력)인고
崑崙山(곤륜산) 白玉石(백옥석)을 蓮花臺(연화대)⁷⁾ 삭여 내어
그 우희 十二層(십이층)을 層(층)마다 꽃송이라
모모히 걸닌 경쇠⁸⁾ 생 鶴(학)이 우니난 듯
衣冠(의관)을 整(정)히 하고 大雄殿(대웅전)을 나가니
金碧(금벽)⁹⁾이 燦爛(찬란)하야 구름 속의 어리었다
雙龍(쌍룡)을 크게 삭여 殿上(전상)의 서려난대
左右(좌우)의 牧丹花(목단화)는 蓮(연)꽃과 석거 피어
靑紗籠(청사롱) 玉燈盞(옥등잔)을 面面(면면)히 거러두고
寶塔(보탑)¹⁰⁾을 너피무어 서부쳐 안디시니
第一層(제일층) 金光(금광) 속의 世尊(세존)¹¹⁾이 主塔(주탑)¹²⁾하고
彌勒佛(미륵불) 觀世音(관세음)¹³⁾은 次例(차례)로 모셔있다

천왕당 깊은 곳에 찬바람이 절로 나니
황금 갑옷 칠성검에 네 장수가 나눠셨다.
만세루 크게 열고 정당에 앉은 뒤에
새긴 창문 나는 처마 화려하기 대단하다.
네 면에 그린 신선 모발이 살아난 듯
큰 소매 높은 관의 늙은 중이 올라와서
백팔 엄주 손에 걸고 한 소리 목탁 소리
열네 방의 모든 중이 차례로 모여오니
위엄은 꼼꼼하고 인사도 바르도다.
창창한 송백림에 층층하게 채색 집이
안력이 황홀하니 갈 길이 희미하다.
시왕전 나한궁이 동서로 벌렸는데
뜰 앞에 새긴 탑은 어느 때에 세웠는가.
곤륜산 흰 옥석을 연화대에 새겨 내어
그 위에 십이층을 층마다 꽃송이라.
모서리마다 걸린 경쇠 산 학이 우니는 듯
의관을 단정히 하고 대웅전에 올라가니
금벽이 찬란하여 구름 속에 어리었다.
쌍룡을 크게 새겨 전각 위에 서렸는데
좌우의 모란꽃은 연꽃과 섞여 피어
청사초롱 옥 등잔을 각 면마다 걸어두고
보탑을 넓게 만들어 세 부처를 앉혔으니
첫째 층 금빛 속에 세존이 주가 되고
미륵불 관세음을 차례로 모셨구나.

1) 보현사의 사천왕문(사찰로 들어서는 문 중 일주문 다음에서 대문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을 모신 곳).

2) '칠성검'은 궁궐의 무관들이 주로 패용하던 검이고, '네 장수'는 사천왕.

3) '만세루'는 보현사에 있는 누각이고, '정당'은 주지 스님이 거처하는 곳.

4) 주인과 손이 서로 만나 인사함

5) '시왕전'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는 열 명의 대왕을 모신 전각이고, '나한궁'은 온갖 번뇌를 끊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만한 공덕을 갖춘 성자(聖者)인 아라한을 모신 전각.

6) 보현사의 13층 석탑.

7) '곤륜산'은 중국의 신화에서 가장 영험이 강한 신선들이 모인 산이고, '연화대'는 탑이나 법당에서 부처상과 보살상을 앉히는 자리.

8) 경쇠. 부처 앞에 절할 때 흔드는 작은 종.

9) 황금색과 푸른 빛으로 단청(丹青)한 벽.

10) 보현사의 9층 탑.

11) 석가모니 부처님.

12) 주 되게 안치함.

비단보 은궤을 古蹟(고적)을 차자보니
 釋迦如來(석가여래) 어금이가至今(지금)의 宛然(완연)하다.
 漢文公(한문공) 佛骨表(불골표)¹⁾의 석은뼈 이 안닌가
 부처가 靈(영)타 한들 뼈조차 그룩하라
 西山(서산)²⁾의 집단 막대 貴(귀)키도 貴(귀)커니와
 惟政(유정)의 님든 袈裟(가사)³⁾ 백세의 寶(보)배로다
 湖南(호남)의 八百(팔백) 義兵(의병) 千里(천리)의 싸흔 功(공)이
 滄波(창파)의 흔 듯대로 王命(왕명)으로 도라오니
 그 때의 님던 오시 이 가사 그 안닌가
 觀音殿(관음전) 올라와서 赤蓮齋(적련재)⁴⁾ 나아오니
 쓸흔밥 피난물은 香(향)내롭기 그지읍다
 밤중만 風磬(풍경) 소리 꿈조차 淸涼(청량)하다
 춘 벼개 덜 썬 잠의 南窓(남창)을 넣어보니
 冷冷(냉랭)한 솔바람의 만정(滿庭)한 花月(화월)이라
 긴 밤을 안자새와 開心寺(개심사)⁵⁾ 너머가니
 전조(前朝)⁶⁾ 적 삭인 거북 넷 碑(비)를 등의 지고
 풀 속의 엽두연디 몇 百年(백년) 되단 말가
 서흔 여덜 浮圖石(부도석)⁷⁾을 낫낫치 차자보니
 밤마다 瑞氣(서기)하기 아마도 奇異(기이)하다
 臺下瀑(대하폭) 暫間(잠간) 디나 引虎臺(인호대)⁸⁾ 차지리라
 一千(일천) 길 쇠사슬⁹⁾이 絕壁(절벽)에 걸녀 있다
 半空(반공)의 몸을 내려 거름거름 올라가니
 귀석의 춘 바람은 太淸(태청)에 홀로 난 듯
 발 아래 흰 구름은 下界(하계)가 茫茫(망망)하다

비단보 은궤에서 옛 자취를 찾아보니
 석가여래 어금니가 지금에도 뚜렷하다.
 한문공의 불골표에 썩은 뼈 이 아닌가.
 부처가 신령해도 뼈조차 거룩하라.
 서산대사 짚던 지팡이 귀하기도 귀하거니와
 사명당 입던 가사 백 세의 보배로다.
 호남 팔백 의병 천 리에 싸운 공이
 창파에 한 듯대로 왕명으로 돌아오니
 그 때에 입던 옷이 이 가사 그 아닌가.
 관음전 올라와서 적련재 나아오니
 깨끗한 밥 산나물은 향기롭기 그지없다.
 밤중의 풍경소리 꿈에서도 청량하다.
 찬 벼개 덜 깬 잠에 남쪽 창을 열어보니
 시원한 솔바람에 뜰 가득한 꽃 위 달빛이라.
 긴 밤을 앓아 새워 개심사 넘어가니
 고려 때 새긴 거북 옛 비를 등에 지고
 풀 속에 엮드린 지 몇 백 년이 되었고.
 서른여덟 부도석을 낱낱이 찾아보니
 밤마다 상서롭기 아마도 기이하다.
 대하폭포 잠깐 지나 인호대 찾으리라.
 일천 길 쇠사슬이 절벽에 걸려 있다.
 반공중에 몸을 내려 걸음걸음 올라가니
 귓가에 찬 바람은 하늘을 홀로 나는 듯
 발 아래 흰 구름은 하계에 아득하다.

13)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에 이어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이고, '관세음'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불교의 보살.

1) '한문공'은 당나라 때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한유(韓愈). '불골'은 부처의 뼈로 한유가 형부시랑로 있을 때, 당 황제 헌종(憲宗)이 불골을 궁궐에 들여오자, '불골표(佛骨表)'를 올려 그 불가함을 극간했다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좌천되었음.

2)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조선의 승려. 법명은 '휴정(休靜)'

3) '유정'은 사명대사(四溟大師). 조선의 승려로 유정(惟政)은 법명임.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전공을 세우고 당상관(堂上官)의 위계를 받았으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 강화를 맺고 조선인 포로 3,500명을 인솔하여 귀국하는 공을 세웠음. 승려가 장삼(長衫) 위에, '가사'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치는 법복(法服).

4) '관음전'과 '적련재' 모두 보현사에 있는 전각.

5) 묘향산에 있는 사찰.

6) 옛 왕조. 고려 왕조

7) 고승(高僧)이 죽은 뒤에 그 유골을 안치하여 세운 둥근 돌탑.

8) '대하폭'은 묘향산에 있는 폭포이고, '인호대'는 묘향산에 있는 기암(奇巖).

9) 폭포에서 물방울이 이어 부서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

法王峰(법왕봉)¹⁾ 아적 안개 돛난 히에 바인난대
 네 피의 구름 남기 그림 속 烟雨(연우)로다
 九天(구천)의 銀河水(은하수)가 세 길로 내려오니
 散珠瀑(산주포)²⁾ 느는 형세 굿살을 헤жат난 듯
 龍淵瀑(용연포)³⁾ 깃흔 소의 노룡이 잠겼난 듯
 上上層(상상층) 天神瀑(천신포)⁴⁾ 난 하늘빛 소리로다
 高麗(고려) 적 西域(서역) 중이 庵子(암자) 터 定(정)홀 따의
 범이라 引導(인도)하야 이 터의 오단 말가
 바희우 ㄹ는 닐로 上院庵(상원암)⁵⁾ 건너가니
 밝근 窓(창) 정(淨)홀 靑의 景物(경물)이 瀟灑(소쇄)홀사
 三淵先生(삼연선생) 四韻詩(사운시)⁶⁾가 座上(좌상)에 써잇시니
 네 사람 디온 그리 오난날 經(경)이로다
 龍角石(용각석)⁷⁾ 노픈 돌의 몇몇이 제명(題名)하고,
 큰 글자 자근 劃(획)이 빈틈이 저여읍다
 君子(군자)는 귀언마며, 小人(소인)은 몇 사람고
 돌 우해 삭인 일홈 後人(후인)의 거우리라
 東(동)으로 셋째 峰(봉)에 佛影臺(불영대)⁸⁾ 지어시니
 千年(천년)의 네 史記(사기)⁹⁾를 예다가 주어다가
 五臺山(오대산) 온긴 후의 梵王宮(범왕궁)¹⁰⁾의 되단 말고
 方正(방정)한 너른 쏘의 山杏花(산행화) 훗날이고
 縹渺(표묘)한 놉흔 피의 놀 새도 그쳐시니
 石檀(석단)의 안진 중이 松陰(송음)의 죠을 적의
 爐烟(노연)은 자라지고 풍탁(風鐸)이 절로 우니
 내 ㄹ의 노는 사람 제 와서 질뜨린다
 率夫(솔부)를 부러내어 杜鵑花(두견화) 다 진 後(후)의
 萬壑(만학)을 얼핏 지나 佛智庵(불지암)¹¹⁾ 드러가니

법왕봉 아침 안개 돛는 해에 비치는데
 네 산의 구름 나무 그림 속의 안개비로다.
 높은 하늘 은하수가 세 길로 내려오니
 산주폭포 나는 모습 구슬을 헤치는 듯
 용연폭포 깊은 못에 노룡이 잠겼는 듯
 맨 위층 천신포 하늘 밖의 소리로다.
 고려 때 서역 중이 암자 터를 정한 땅에
 범이라 인도하여 이 터에 왔단 말인가.
 바위 위 가는 길로 상원암 건너가니
 밝은 창 깨끗한 궤에 경치가 깨끗하고
 삼연선생 사운시가 좌상에 써 있으니
 옛사람 지은 글이 오늘날 경치로다.
 용각석 높은 돌에 몇몇이 이름 쓰고
 큰 글자 작은 획이 빈틈이 전혀 없다.
 군자는 그 얼마며, 소인은 몇 사람인가.
 돌 위에 새긴 이름 후인에게 거울이라.
 동으로 셋째 봉에 불영대 지었으니
 천년의 네 사기를 여기에 주었다가
 오대산 옮긴 후에 범왕궁이 되었는가.
 반듯한 넓은 뜰에 살구꽃 활날리고
 어렴풋이 높은 산에 나는 새도 그쳤으니
 돌단에 앉은 중이 솔 그늘에 졸 적에
 향불은 잦아지고 풍경이 절로 우니
 냇가에서 노는 사람 스스로 와 길들인다.
 길잡이를 불러내어 두견화 다 진 후에
 골짜기를 얼핏 지나 불지암 들어가니

1) 묘향산의 한 봉우리.

2) 묘향산에 있는 폭포.

3) 묘향산에 있는 폭포.

4) 묘향산에 있는 폭포.

5) 보현사의 부속 암자.

6) '삼연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장가인 김창흡(金昌翕)으로 기사환국이 있는 뒤로 명산을 두루 유람하였음. '사운시'는 네 개의 운각(韻脚)으로 된 율시(律詩).

7) 묘향산에 있는 기암(奇巖).

8) 불영봉에 있는 보현사(普賢寺)의 별전으로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全州史庫)의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묘향산사고가 있었음.

9) 조선왕조실록.

10) 범당 혹은 절.

居僧(거승)을 다 썰나고, 빈집만 남아는데
 香爐(향로)의 찬재 우해 뵈주¹⁾ 자취뿐이로다.
 普賢庵(보현암)點心(점심)하고 賓鉢庵(빈발암)²⁾ 올라가니
 經(경) 읽던 大師(대사) 중이 두세 弟子(제자) 다리고
 緇衣(치의)를 길게 꼬여 客堂(객당)³⁾의 마정 드니
 房房(방방)이 높은 床(상)의 床(상)마다 네 經書(경서)와
 法服(법복)를 가틴 後(후)의 誦聲(송성)이 洋洋(양양)하니
 太古(태고) 적 깊은 산에 희미한 긴 날이라
 人世(인세)의 榮辱(영욕)을 아느냐 모로논다
 中臺(중대)을 계오 너머 檀君臺(단군대)⁴⁾ 올라가니
 樸地(박지)한 一千峯(일천봉)이 臺(대) 아래 朝會(조회)하고
 上古(상고)의 흰 구름이 峰(봉) 우회 절로 난다
 香(향)나무 등걸 아래 神人(신인)을 뉘라 댕고
 東方(동방)의 첫 人君(인군)⁵⁾이 이 안이 聖人(성인)인가
 넷마리 蒼茫(창망)하니, 놀더려 무를노니
 斜陽(사양)을 엮회 기고 萬瀑洞(만폭동)⁶⁾ 내려가니
 百尺(백척)의 나난 무리 것구루 쇼들 저의
 萬馬(만마)가 함괴 달너 九龍(구룡)이 섰거 치니
 項羽(항우)의 三萬精騎(삼만정기) 巨鹿(거록)의 掩襲(엄습)⁷⁾한 듯
 韓信(한신)의 二千紅旗(이천홍기) 조벽(趙壁)⁸⁾을 빼앗는 듯
 霹靂(벽력)이 급(급)히 치니 平地(평지)가 움직인다
 牛足臺(우족대) 暫間(잠간) 보고 內院庵(내원암)⁹⁾ 숙여 드니
 바회속 차근 집은 金剛窟(금강굴)¹⁰⁾ 奇異(기이)하고
 如來(여래)의 舍利塔(사리탑)은 古蹟(고적)이 疑心(의심)된다
 큰 房(방)의 내려와서 이 밤을 더 새라니

큰 스님은 다 떠나고 빈집만 남았는데
 향로 식은 재 위에는 큰 스님의 자취뿐이로다.
 보현암에 점심 먹고 빈발암 올라가니
 경 읽던 대사 중이 두세 제자 데리고서
 치의를 길게 끌고 객당에서 마중하니
 방방마다 높은 상에 상마다 옛 경서와
 법복을 갖춘 후에 글 읽는 소리 낭랑하니
 태고 적 깊은 산에 희미한 긴 날이라.
 인간 세상 영욕을 아느냐, 모르느냐.
 중대를 겨우 넘어 단군대 올라가니
 땅 엮드린 일천 봉이 대 아래 조회하고
 상고 때 흰 구름이 봉 위에 절로 난다.
 향나무 등걸 아래 신인을 뉘라 했다.
 동방의 첫 임금인 이 아니 성인인가.
 옛말이 아득하니 뉘에게 묻겠는가.
 석양을 옆에 끼고 만폭동 내려가니
 백척으로 나는 물이 거꾸로 치솟을 적에
 만 마리 말 함께 달려 아홉 용이 섞여 치니
 항우의 삼만 기병 거록을 습격하는 듯
 한신의 이천홍기 조벽을 빼앗는 듯
 벼락이 급히 치니 평지가 움직인다.
 우족대 잠깐 보고 내원암 숙여 드니
 바위 속 작은 집은 금강굴 기이하고
 여래의 사리탑은 고적이 의심된다.
 큰 방에 내려와서 이 밤을 더 새려니

11) 보현사의 부속 암자.

1) 산 주인. 여기서는 큰 스님.

2) '보현암', '빈발암' 모두 보현사의 부속 암자.

3) '치의'는 검은 물을 들인 승려의 옷이고, '객당'은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4) '중대', '단군대' 모두 묘향산에 있는 기암(奇巖).

5) 단군.

6) 여러 폭포와 기암들이 모여 있는 묘향산의 명승지.

7) '항우'는 중국 진나라 말기의 군인이자, 초한전쟁 때 초나라의 군주. '거록'은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대파한 땅.

8) 초한전쟁 때, 한나라 장수 한신이 조(趙)나라를 공격할 때 조벽(趙壁) 근처에 미리 군사 2천 명을 매복시키고, 거짓 패전해 도망하여 조군(趙軍)을 유인한 다음 매복한 군사들로 하여금 조벽에 들어가서 조의 깃발을 다 뽑아내고 한의 깃발을 꽂게 한 일.

9) '우족대'는 묘향산의 기암이고, '내원암'은 보현사의 부속 암자.

10) 묘향산에 있는 동굴.

깊은 산 혼자 밤의 萬籟(만뢰)¹⁾가 寂寞(적막)하다
香盤(향반)의 불이 피고 불등(佛燈)이 明滅(명멸)하다
老僧(노승)의 기침 소리 그 더욱 閑暇(한가)하다
唐天使(당천사) 편지軸(축)의 宣廟朝(선묘조) 御製詩(어제시)²⁾는
祥雲(상운)이 덮혀는데 百靈(백령)³⁾이 護衛(호위)하다
見佛庵(견불암) 지나 건너 武陵瀑(무릉폭)⁴⁾ 드러가니
金(금)모래 玉(옥)바회의 수정렴(水晶簾) 걸렸는데
아직히 빗기 켜니, 五色(오색)이 섰거졌다
點點(점점)이 떠온 꽃이 어디서 썰리진고
이 물을 찾아가면, 그 아니 도원(桃源)이라
저 峰(봉)의 불근 기棟(동) 네 庵子(암자) 터히던가?
迦葉庵(가섭암) 阿蘭庵(아란암)⁵⁾은 어니 히에 묻혀지고
香爐殿(향로전) 다 본 後(후)의 靈山殿(영산전)⁶⁾ 올라가니
南精庵(남정암)⁷⁾ 석간비의 쇠북 소리 신(新)하다
白笑庵(백소암) 나린 峰(봉)의 天柱石(천주석)⁸⁾ 놓하시니
繼祖庵(계조암)⁹⁾ 오는 길로 큰 절로 도라와서
긴 시내 낀 안개에 洞門(동문)을 다시 나서
말 잡고 도라보니 萬壑千峰(만학천봉)이
구름 빗 뿐이로다. (完)

깊은 산 혼자 밤에 세상 소리 적막하다.
향반에 불이 피고 등불이 깜박이니
노스님의 기침 소리 그 더욱 한가하다.
당천사 편지와 선조의 어제시는
상운이 덮였는데 모든 신령이 호위한다.
견불암 지나 건너 무릉폭포 들어가니
금 모래 옥 바위에 수정발이 걸렸는데
아침 해 비껴 켜니 오색이 섞여졌다.
점점이 떠 온 꽃이 어디에서 떨어졌다.
이 물을 찾아가면 그 아니 도원이라.
저 봉의 불근 기둥 옛 암자 터이던가.
가섭암 아란암은 어느 해에 무너졌다.
향로전 다 본 후에 영산전 올라가니
남정암 보슬 비에 쇠북 소리 새롭구나.
백소암 내린 봉에 천주석 높았으니
계조암 오는 길로 큰 절로 내려와서
긴 시내 낀 안개에 동문을 다시 나서
말 잡고 돌아보니 천 계곡 천 봉우리에
구름 빗뿐이로다.

1) 만물의 소리.

2) '당천사 편지축'은 당나라 천자의 사신이 가져왔다는 편지이고, '선묘조 어제시'는 선조가 직접 지은 시.

3) 평안도의 하천.

4) '견불암'은 보현사의 부속 암자이고, '무릉폭포'는 묘향산에 있는 폭포.

5) '가섭암', '아란암' 모두 보현사의 부속 암자.

6) '향로전', '영산전' 모두 보현사의 경내에 있는 전각들.

7) 보현사의 부속 암자.

8) '백소암'은 보현사의 부속 암자이고, '천주석'은 평안도 영변에 있는 돌기둥.

9) 보현사의 부속 암자.